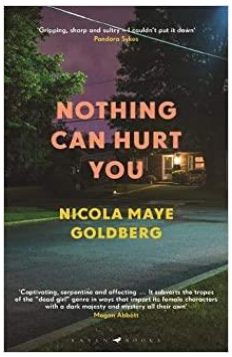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NOTHING CAN HURT YOU

가제 : 죽음 + 죽음 = ? : 살인 사건,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저자 : Nicola Maye Goldberg

출판사: Raven Books

발행일: 2020년 7월 9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날카로우며 관능적인 이야기, 손에서 책을 내려 놓을 수가 없었다." - 판도라 사익스**

*** "매혹적인 뱀 같은 소설.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여성 캐릭터에 어두운 위엄과 미스터리성을 부여한 스릴러" - 메간 애봇**

*** 한 젊은 여성의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로 실화에 바탕을 둔 소설**

1997년 어느 추운 겨울날, 대학생 사라 모건이 뉴욕 한 대학 주변 숲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된다. 당시 그녀의 남자 친구였던 블레이크 캠벨이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지만 정신 질환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죽음에 관한 진상을 파헤치거나 나름의 복수를 꿈꾸며 살고 있다. 다양한 인물들의 관점을 통해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이 작품은 한 비극적 죽음이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소설이다.

한때 오컬트에 심취했던 마리앤은 오컬트에서 빠져나온 이후로도 끔찍한 환영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 환영이 펼쳐지는 배경은 어떤 숲이었고 언제나 날카로운 칼이 등장했다. 마리앤은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남편의 조언에 따라 뉴욕의 한 한적한 대학 마을로 이사를 한다. 한편 마리앤의 남편은 이따끔 동료 테드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곤 했다. 테드는 아내와 사별 후 홀로 딸 메도우를 키우는 싱글파더인데, 그 딸마저 약물 중독으로 재활원과 집을 오가며 지내던 중 딸이 아예 가출하면서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날 역시 식사에 초대 받은 테드는 폭설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마리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테드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동료의 부인인 마리앤을 성추행한다. 다음 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너무나도 태연하고 뻔뻔한 테드에게 마리앤이 다가가 그의 가출한 딸은 이미 강간 당한 뒤 어디엔가 시체로 버려져 있을 것이라는 저주인지 예언인지 모를 말을 속삭인다. 얼마 후

이 일을 알게 된 마리앤의 남편은 마리앤을 추궁했고 그녀는 집에서 나와 숲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곳에서 낙엽과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버려져 있는 한 젊은 여자, 사라의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을 부른다. 마리앤은 시간이 지나 사라가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것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를 듣지만, 죽은 사라의 표정이 고통이나 공포에 질린 모습이 아닌 너무나 기쁘고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다는 것을 오래도록 잊지 못한다.

한편 알코올 중독으로 재활원에서 생활 중이던 케이티는 블레이크와 친해진다. 그는 약에 취해 여자친구 '사라'를 죽였지만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옥 대신 재활원에 입소했다. 부유한 백인 집안 출신에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던 데다 전과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었다. 케이티는 곧 재활원을 나와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블레이크를 잊지 못하고 그에게 연락했다.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인물 신문 기자 줄리엣은 연쇄살인범 존 로건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여섯 명의 여자를 죽인 뒤 자기 집 뒷마당에 묻은 악독한 살인자였지만, 희생자들은 평범한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줄리엣은 존이 수감된 지 한 달 뒤 그의 집과 꽤 가까운 곳에서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 당한 사라의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존과 그 살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쉽게 묻혀버린 그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한다.

한편 사라의 여동생인 루나는 어느 날 줄리엣이 쓴 기사를 읽었고 언니를 위한 복수를 결심한다. 루나는 외모까지 바꾸어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한 베이비시터로 위장해 이제 다른 여자와 결혼해 아기까지 키우고 있는 블레이크의 집에 들어간다. 하지만 곧 블레이크에게 정체가 탄로나고 블레이크는 계속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다. 루나는 블레이크의 결백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복수를 감행해야만 하는 것일까?

성폭력 사건들을 우리 일상에 어느 곳에나 침투해 있다는 관점으로 한 여성의 죽음과 다른 죽음들, 상처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니콜 메이 골드버그 (Nicole Maye Goldberg)는 바드 칼리지 및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 전작으로는 『Other Women and The Doll Factor』이 있으며 CrimeReads, The Quietus, Queen Mob 's Teahouse, Winter Tangerine 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제목 : THE FLAMES

가제 : 에곤 걸즈: 문제적 화가 에곤 쉴레의 뮤즈들

저자 : Sophie Haydock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22년 봄

분량 : 247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제 1차 세계 대전과 스페인 독감의 유행으로 피폐해진 1900년대 초반의 유럽, 클림트를 능가한 재능으로 20세기 미술계를 뒤흔든 천재 화가 에곤 쉴레의 명성에 가려져 있던 그의 뮤즈들, 네 명의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

*** 신인 작가들의 별, Impress Prize 수상**

***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열광하게 될 책**

20세기 초, 전쟁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 있긴 했지만 여전히 호화로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던 비엔나, 두 살 때부터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천재 화가 에곤 쉴레를 사랑했던 네 명의 여인들. 이 소설은 바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이 중 한 명은 배신을 선택하고 결국 이 배신 때문에 네 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는 하나로 모아진다. 이 소설은 시대를 뒤흔든 문제적 화가 '에곤 쉴레'의 짧지만 강렬했던 인생과 그를 사랑했던 네 명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1968년 비엔나, 에바는 딴생각에 빠져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한 나이든 여인을 치고 말았다. 그녀에게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고 누더기 같은 옷 사이로 때가 낀 손톱이 눈에 들어왔다. 놀란 에바가 황급히 그 여인을 일으키려 하자 그녀는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에바가 그녀에게 사과하며 이름을 묻자, 갑자기 50년 동안 누군가를 찾아 헤맸다는 것과 자신의 고통스러운 희생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구급차에 실려 탈 때까지 그 여인은 한 예술가의 전시 포스터를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그의 이름을 허공에 쓰고 있는 듯했다. 구급차가 출발한 후 에바는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발견했다. 목걸이에는 'E & E' 혹은 'E & A'라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 목걸이는 아까 그 여인의 것이 분명했다. 그 시각 구급차 안에 누워 있는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았던 젊은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물어본 것은 수십 년 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에곤 쉴레와 결혼한 에디트 함스의 동생 아델 함스였다. 오랜 세월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던 아델은 처음 에곤이 '아델'이라는 이름을 속삭이던 그 때를 떠올렸고 오랫동안 마비된 채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던 뇌에 일순간 기쁨의 회로가 반짝이는 것을 느끼며 웃었다. 다음 날 아델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벗어나 어제 사고가 난 자리에 달려가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고 싶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78세였고 슈타인호프 정신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지금 유방암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 급한 일이 있다며 병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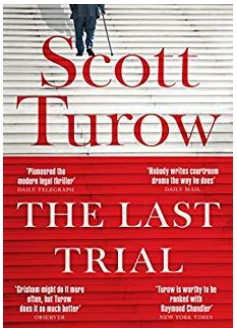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델에게 의사는 주사를 놓았고 아델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던 첫날을 떠올렸다. 당시 아델은 본인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때 부유한 집안 출신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며 매력적인 화가 에곤 쉴레의 뮤즈였다는 것만은 기억할 수 있었다. 그녀는 에곤이 자신을 한 때는 사랑했다고 믿었다.

1912년 노이렝바흐, 에곤은 자신의 애인이자 모델인 발리와 동거하던 중 가출한 소녀 타티아나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집에서 재워주게 되었다. 아직 미성년자였지만 에곤은 타티아나의 누드화를 그렸고 이후 이 사실을 알고 에곤의 집에 찾아온 타티아나 아버지의 고발과 타티아나의 거짓 진술 때문에 에곤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경찰이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 100여 점에 달하는 외설적인 그림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발리가 에곤을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을 헤매고 다니던 중 다행히 타티아나가 에곤의 편을 들며 진술을 번복한 덕분에 에곤은 곧 출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곳의 답답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에곤은 발리와 함께 더 자유롭게 예술을 할 수 있는 비엔나로 이사했다.

1914년, 아델은 맞은 편 집으로 이사온 에곤에게 한눈에 반해 매일 그를 멀리서 훔쳐보았다. 아델은 그와 사랑을 나누는 상상에 빠지기도 하며 그의 뮤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에곤 역시 부유한 집안의 딸들인 아델과 에디트를 유심히 눈여겨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델은 에곤과 발리가 집을 나서는 것을 발견했고 홀린 듯이 남몰래 그들을 쫓아가던 중 노숙인을 만나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때 에곤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었고 그는 그녀의 볼이 아닌 입술에 의도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아델은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에디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에디트는 에곤과 사랑에 빠지고 에곤은 자신의 신분을 위해서라도 발리 대신 에디트와 결혼하고 만다. 그 후 아델은 베신을 선택하고 아예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이 되어버렸다. 한편 발리는 결혼 후에도 연인 관계를 지속하자는 에곤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를 영영 떠난다.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에곤 쉴레의 네 명의 여성들의 이야기, 완전한 무명의 존재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에곤의 그림 속 한 주인공으로 남기만을 바랐던 한 여인의 일생에 관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소피 헤이독 (Sophie Haydock)은 The Times, Guardian등에 기사를 기고하고 있는 저널리스트이며 Sunday Times 단편 스토리 어워드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Word Factory 단편 스토리 팀 부팀장이다. 그녀는 Royal Academy Magazine 및 Sotheby's에 에곤 쉴레와 관련된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이 소설은 이미 신인 작가에게 주는 상인 2018 년 Impress Prize 상을 수상했으며 PENfro Book Festival의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제목 : THE LAST TRIAL

가제 : 마지막 재판: 의료 분쟁에 휘말린 친구의 혐의를 씻어줄, 인생의 마지막 재판

저자 : Scott Turow

출판사: Mantle

발행일: 2020년 5월 28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범죄, 스릴러

*** 40개국 이상 번역 출간, 3천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한 베스트 & 스테디셀러 작가의 신작 법정 스릴러**

여든 다섯 살 고령의 나이, 한때 유명세를 떨쳤던 변호사 알레한드로 스턴, 일명 '샌디'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오랜 친구이자 세계 최고의 의학자 키릴 파코 박사가 부당 거래 및 사기,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샌디는 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다. 그는 과연 성공적으로 자신의 변호사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까?

2019년 11월, 엄중한 재판장, 한 젊은 여자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그 곳을 가득 채웠다. 세계적인 외과의사 키릴 파코 박사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의 친구이자 변호인이기도 한 샌디는 파코 박사의 품에 안긴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보조를 맡고 있던 샌디의 손녀 핑키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법정의의 경비들이 그들에게로 다가왔고 파코 박사는 샌디의 셔츠 단추를 풀고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샌디가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서둘러 확인했다. 파코 박사의 요청으로 주변의 몇몇이 인공호흡을 시도했고, 곧 핑키가 제세동기를 들고 나타났다. 상황이 안 좋긴 했지만 이상하리라만큼 분노에 차있던 그녀는 파코 박사에게 제세동기를 전달한 후 제세동기를 꺼내느라 다쳐 피가 철철 흐르는 손으로 한 기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지금 할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며 욕을 해댔다.

이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 마지막 재판장에 들어선 샌디는 여느 때와 같이 판사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곁에 있던 공동 변호인인 그의 딸 마르타와 어시스턴트 역할을 해줄 손녀 핑키 역시 예를 표했다. 그리고 샌디의 곁에는 일흔 여덟 살의 친구 파코 박사가 앉아 있었다. 파코 박사의 증인으로는 그의 아들과 손자가 와 있었다. 파코는 아내 도나텔라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의학 공부를 마치기 위해 미국으로 온 사람이었고 지금은 두 아들과 다섯 명의 손자 손녀가 모인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그는 세계적인 암 전문가로 노벨 의학상까지 수상한 사람이었고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파코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파코 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기적의 암치료제인 'g-Livia'의 임상 시험 데이터를 위조하여,

그 약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들의 비극적인 사건은 은폐한 채 비정상적으로 신속히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사기 죄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에 정부 측 수석 변호인인 모세 애플턴은 파코 박사가 이 사기극을 통해 회사 주식으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암환자 일곱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 결과 검찰은 파코 박사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세계적인 의학자였던 파코 박사의 명성은 하루 아침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샌디는 친구이자 의뢰인인 파코 박사의 결백을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었고 그를 변호하기 위해 어느 때 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뭔가 달라보였다. 마르타는 자신의 고객인 파코 박사의 안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아버지의 이 마지막 재판 역시 아버지의 허영심 혹은 오판 또는 그 둘 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8개월 전 샌디는 파코 테라퓨틱에 가서 증인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사고를 냈고 뇌의 혈종까지 발견되었다. 하지만 의사에 진단에 따라 지금은 별 이상이 없는 상태였고 재판장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있던 그는 계속 친구의 변호를 맡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파코 박사 연구진이 개발한 g-Livia가 있었다. 이 약은 겨우 몇 달 동안 기본적인 치료만 받았던 암환자들의 상태를 기적적으로 회생시켰고 암 진행 속도 자체도 느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종양의 크기마저 축소시켰다. 하지만 단시간에 FDA 승인을 받은데다 이례적으로 겨우 몇 년 만에 실제 투약까지 가능해진 후 2016년, 파코 박사의 아들이자 파코 테라퓨틱의 의료 부분 실장인 레오폴드는 이 약을 투약 받은 세계 곳곳의 암 환자들이 암과는 관련 없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파코 박사와 레오폴드는 사망 사건을 직접 조사했고 병원 측에서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던 중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아무도 파코 박사의 주장을 믿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오직 샌디만이 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다. 인간의 나약한 본성과 사법 시스템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작가의 깊은 통찰력이 빛나는 법정 스릴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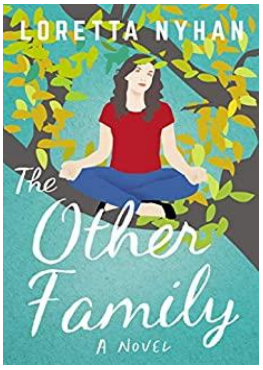
<저자 소개>

스캇 터로 (Scott Turow)는 Testimony, Identical, Innocent, Presumed Innocent, and The Burden of Proof등 총 11권의 베스트셀러와 법대생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쓴 두 권의 논픽션 작품을 쓴 저자이다. 그의 책은 전세계 40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몇몇 작품은 영화 및 TV 시리즈로 제작된 바 있다. 또한 종종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배니티 페어, 뉴요커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The Sunday Times (London) – superb review!
https://www.thetimes.co.uk/article/the-last-trial-by-scott-turow-review-another-perfectly-executed-legal-thriller-mzrxgzccq
"[THE LAST TRIAL showcases] Turow's distinctive, addictive fusion of the cerebral and the melodramatic. The novel features death, grief, revenge, rage, international fame, vast wealth, breathtaking deceit, attempted murder and illicit passion, all filtered à la classical tragedy through the formality of the five-act trial. Devotees of Saul Bellow or Philip Roth may be reminded of those of their books centred on the doppelgänger-like relationship of two men warily circling each other… Although the comparison may seem far-fetched, Turow's characterization and psychology in this superlative performance are by no means inferior to such literary novels, and the writing is just as fine — while the plot, at once propulsive and impeccably structured, is infinitely more gripping." – *The Times of London*

Bookreporter
https://www.bookreporter.com/reviews/the-last-trial
"THE LAST TRIAL plays out in highly suspenseful fashion as readers embark on a roller coaster ride… Everyone wants to see Stern wrap up his career with a win—but Turow has surprises and roadblocks up his literary sleeve that will make this very difficult. As a character, Stern really does go out with a bang. If he was a stage actor, a theater reviewer would have written about how he 'commanded' the stage and kept the audience rapt in attention waiting for his next move. He is just that good!" – *Bookreporter*

Crime Reads
https://crimereads.com/scott-turow-on-the-one-character-who-keeps-coming-back-to-him-again-and-again/
Scott Turow on the One Character Who Keeps Coming Back to Him, Again and Again: On Kindle County, Sandy Stern, and a career in novels



제목 : THE OTHER FAMILY

가제 : 나의 또다른 가족

저자 : Loretta Nyhan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4월 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가족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탐구하는 작품 -「커커스 리뷰」**

***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중한 이야기이자 재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당신은 앨리를 끝까지 응원하게 될 것이다." - 『Trophy Life』의 저자, 레아 겔러**

앨리 앤더슨은 무너지고 있는 결혼 생활, 빠듯한 재정 상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고 제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기만을 갈망했다. 그녀의 많은 걱정들 중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어린 딸 카일리의 건강상태였다. 앨리는 카일리의 병이 유전적 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카일리의 병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DNA 테스트 결과는 앨리의 인생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었다. 앨리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가족의 역사들을 알게 될지도 몰랐다.

앨리는 딸 카일리가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딸에게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일리는 자라면서 자주 뚜렷한 이유도 없이 아팠고, 갑자기 열이 나거나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카일리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아냈을 뿐 정확한 병명을 짚어내지는 못했다. 앨리는 카일리가 평범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갖 병원의 문을 두드렸다. 앨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번에도 역시 꽤 유명한 의사인 인디고 박사를 찾아 카일리를 데리고 갔다. 인디고 박사는 카일리가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카일리의 양가 병력이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디고 박사가 가족력에 대해 묻자 앨리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앨리는 어린 시절 입양됐기 때문이다. 인디고 박사는 유전병 분야의 전문의였고 앨리는 그녀가 제안한 DNA 테스트에 대해 고민해보기로 했다.

앨리의 양어머니는 남편과 헤어지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바를 운영하며 앨리를 입양해 키웠다. 앨리와 남편 맷 둘 다 딸 카일리를 사랑했지만 카일리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악화된 경제적 사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둘의 가치관이 점점 달라지는 바람에 둘은 이혼까지 생각 중이었다. 이제 앨리는 양어머니처럼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몰랐다.

앨리는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들이 시카고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그들에 대해 아무 것도 아는 정보가 없었고 혹여 양어머니에게 상처가 될까 봐 DNA 테스트 같은 것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온 카일리가 그 동안 결석하는 바람에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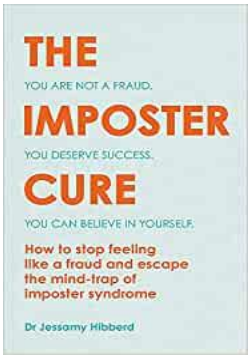
사실을 듣고 DNA 테스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테스트 결과 카일리의 선조들은 스칸디나비아와 북유럽, 남유럽, 유대인 계 및 아프리카 계 혈통이었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마도 앨리의 가족에 대해 밝혀줄 만한 단서가 될 '아슈케나지 유대인(중동부 유럽 유대인 후손)'에 관한 정보였다. 게다가 앨리는 결과지를 무심하게 읽던 중 집 근처 아주 가까이에서 한 웨딩 샵을 운영 중인, 이모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DNA 검사 웹페이지의 정보에 따라 그녀에게 메일을 보냈고 바로 답장을 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미키'로 앨리의 생모인 '씨씨'의 여동생이며 씨씨는 오래도록 앨리를 그리워하다가 지금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키는 조카인 앨리를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길 바라고 있었다.

미키를 만난 앨리는 자신의 외할머니는 심리적 고통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엄마 씨씨 역시 심리적 고통 및 질병으로 평생 괴로워하다가 4년 전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씨씨는 야성적이고 사랑을 좋아하는 여자였지만 주로 밤에 활동했고 약이나 남자에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앨리를 낳았을 때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입양을 보냈던 것이다. 미키는 다시 만나게 된 이모를 비롯해 이모부, 이종형제까지 한꺼번에 새로운 가족을 알게 되고 그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되자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평생 알 수 없는 질환들로 고통 받았다는 생모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면 카일리의 병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새로운 가족들과 더 자주 만나기로 한다. 앨리가 이모네 가족과 점점 자주 만나면서 카일리 역시 그들과 가까워졌고 앨리의 양어머니 또한 그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앨리는 그 가운데에서 누구의 마음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 와중에 앨리는 카일리가 유전자 검사 결과 만성 염증에 시달릴 가능성과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유독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연 앨리와 카일리네 가족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혈연으로 맺은 가족만큼이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가족 역시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레타 니한 (Loretta Nyhan)은 베스트셀러 『Digging In』, 『All Good Part』 및 초자연적 스릴러 인 『The Witch Collector Part I』 및 『The Witch Collector Part II』의 작가이다. 그녀는 수잔 헤이즈 (Suzanne Hayes)와 함께 역사 소설 『Empires and Home Front Girls』를 공동 저술한 바 있다. 대학 졸업 후 무역 잡지사에 글을 기고하는 일을 한 바 있는 그는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글쓰기 강의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게 되었다.

NON-FICTION



제목 : THE IMPOSTER CURE

가제 : 당신의 능력은 운이 아닙니다 - 능력이 불안으로 이어질 때

저자 : Jessamy Hibberd

출판사: Aster

발행일: 2019년 6월 13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심리

* 가면 증후군(imposter syndrome): 1978년 심리학자 폴린 클랜스와 수잔 임스가 '가면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가면 증후군은 "높은 성취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똑똑하거나 유능하거나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남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 70% 이상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상
* "저자는 이 책에서 가면증후군이 가진 심리학점 함정을 소개하고 이를 다루는 최선의 가이드를 제공한다."- 「선데이 타임즈」

"나는 여전히 어느 정도 가면 증후군을 겪고 있다. 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다 자신이 가진 능력 즉 그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 ?
"난 아직도 아침에 잠에서 깨면 내가 사기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깨어난다." - ??
"누군가가 나의 연기에 대해 칭찬을 하면 너무나 불편한 감정이 든다. 마치 내가 사기꾼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 - ???

자기 자신이 이룬 성과와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듯한 심정이 담긴 이 말들은 다름 아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룬, 미 전 대통령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자(COO) 셰릴 샌드버그, 해리포터의 헤로인에서 어엿한 성인 연기자로 변신에 성공한 엠마 왓슨이 한 말이다.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러한 세계적 유명 인사뿐들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가면 증후군은 사람들 스스로 자신은 성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비롯되는 심리적 현상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이유가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운 덕분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룬 업적의 쾌거를 누리기는커녕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사기극으로 탄로날지도 모른다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한다.

복잡한 것처럼 들리지만 가면 증후군은 실제 매우 흔하고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으로 약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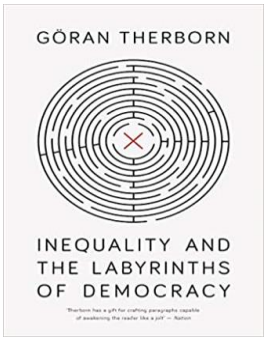
이상의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며, 치명적인 자기 회의감의 이유가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느낌을 억제할 수 있다. 런던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하고 있는 저자 제사미 히버드 박사는 이 책에서 이 가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비밀스러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탐구한다. 또한 히버드 박사는 독자들이 가면 증후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하는 방법, 나 자신을 객관적인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법,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과 실제 연구 사례들을 함께 소개한다. 자신의 성취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책이다.

<목차>

당신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서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u>제 1 부: 가면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기</u>
제 1 장. 가면 증후군이란 무엇인가?
제 2 장. 생존 전략으로서의 자기 의심
제 3 장. 왜 하필 나일까?
제 4 장. 그냥 믿음을 좀 가져보자
제 5 장. 쌍둥이 관계인 과로와 회피
<u>제 2 부: 당신이 사기꾼이 아닌 이유</u>
제 6 장. 이론을 시험해보기
제 7 장. 공감: 자기 비판을 위한 해독제
(이하 생략 총 3부 15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제사미 히버드 (Jessamy Hibberd)박사는 전문 임상 심리학자이자 작가이다. 히버드 박사는 14년 동안 정신 건강 분야 및 NHS(영국 국가 의료 보험)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제목 : INEQUALITY AND THE LABYRINTHS OF DEMOCRACY

가제 : 불평등: 민주주의의 변질과 자본주의의 딜레마

- 스웨덴 석학이 진단하는 21세기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새로운 질서

저자 : Göran Therborn

출판사: Verso

발행일: 2020년 11월 24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사회, 정치

*** "테르본은 매우 개념적인 사상가로 광범위한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이론의 엄격성을 추구하는 학자이다. 따라서 그의 저작은 강력한 증거 자료들을 통해 형성된 매혹적인 이론적 구조를 갖고 있다." - 「네이션」**

*** "아마도 스웨덴에서 가장 저명한 사회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예란 테르본은 사회 과학 분야에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인 기여를 한 바 있으며 그는 언제나 국제적 비교 데이터의 조합을 통해 명쾌함 분석을 내린다." - 『The Age of Extremes』의 저자, 에릭 홉스봄**

'민주주의'는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에 대항하여 산업 시대의 시민들, 여성 및 식민지 주민들의 투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대략 1945년에서 1980년 사이의 단기적인 발전 이후, 민주주의 승리자들의 후손은 이제 더 이상 선조들이 획득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선조들에 비해 더 적은 가능성과 기회가 주어졌다.

왜 이런 상황이 도래한 것일까? 지난 세월 동안 불평등 지수는 더 증가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불평등 문제는 언제나 전세계인들의 공통적이며 지속적인 관심사였다. 1987년과 2009년 사이에 국제 사회 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은 전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소득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79%는 소득 격차의 폭이 너무 크다고 대답했다. 유사한 결과로, 2014 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American Pew Research Center)가 44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불평등은 대다수의 주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조사를 보면 '경제 불평등 심화'가 세계적인 논의 대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보편적인 참정권을 자산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다. 그렇다면 자유 민주주의의 도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오늘날의 대의 정부와 지속적인 자본 통치 사이의 결합 관계는 얼마나 안정적일 수 있을까?

전세계인들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가 그 어떤 사안들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보스 경제 포럼과 OECD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들 중 그 어느 국가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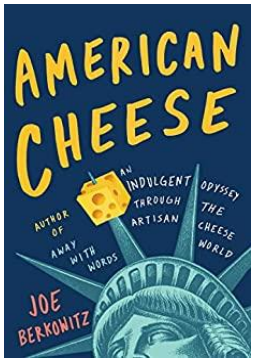
않다. 사회 정의에 대한 대중의 목마름을 대변하던 민주주의는 어쩌다 파워 게임의 형태로 전락한 것일까? 세계적인 사회과학자 예른 테르본은 민주주의 변질과 그로 인한 정치적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후 문제, 파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운동과 전복적인 민주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현재 상황의 사회적 구조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 세계 민주화 역사의 패턴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OECD 경제에 대한 획기적인 분석을 소개한다. 철저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목차>

목차
서문
1장. 역기능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미로 같은 역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사랑 없는 결혼
돌연변이와 변태
포기
미로 밖으로
포스트 시프텀: 코로나 이후의 세계
2장. 자본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부상
민주화의 과제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화의 패턴
(이하 생략, 총 3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예란 테르본(Göran Therborn)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사회학 명예 교수이다. 그의 저서들은 24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주요 저작으로는 『The Killing Fields of Inequality』, 『From Marxism to Post-Marxism?』, 『Between Sex and Power』, 『What Does the Ruling Class Do When It Rules?』이 있다.



제목 : AMERICAN CHEESE

가제 : 치즈 오디세이 - 치즈 없이는 못 살아! 치즈덕후의 치즈 견문록

저자 : Joe Berkowitz

출판사: Harper Perennial

발행일: 2020년 10월 6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교양

*** 베스트셀러 『Away with Words』의 저자가 들려주는 치즈와 문화적 현상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저자 조 베르코비츠는 치즈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는 어떤 날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치즈를 즐겼고 집을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치즈를 선보였다. 그가 채식주의을 포기한 이유도 달걀 없이는 살아도 치즈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치즈를 좋아하는 저자는 이제 치즈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한 고급 치즈 가게에 들렀다가 표면이 아주 매끄러운 미국산 치즈를 맛보았다. 그 치즈는 그가 단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치즈였고 그의 온 감각을 사로잡았다. 그는 마치 위대한 우주의 비밀을 알아낸 것만 같은 황홀감을 느꼈고 단숨에 그 치즈와 불 같은 사랑에 빠져들었다.

이 발견을 계기로 저자는 1년 간의 치즈 탐험에 착수하여 치즈와 관련된 하위 문화의 세계를 누볐다. 그는 먼저 치즈를 만드는 사람, 치즈 상인, 동굴에 머물며 치즈를 숙성시키고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 유제품 과학자, 요식업 전문가들을 포함해 치즈의 장인들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이 여정을 통해 그는 파리의 지하 치즈 동굴에서 그뤼에르 산맥까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그저 치즈를 좋아하던 애호가에서 전문가가 되었다. 또한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미국 치즈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직접 국제 치즈 장인 대회에서 미국 팀과 연합해 위스콘신의 데어리 리서치 센터에서 실험용 통에 치즈를 만드는데 도전하기도 했다.

치즈와 치즈를 둘러싼 문화적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이 오디세이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치즈'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열정적인 치즈 제조업자들의 세계를 보여준다. 치즈 및 식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자의 재치와 필력이 돋보이는 이 책을 통해 환상적인 치즈 여행을 떠나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 데어리 나니아 엿보기

제 1 장: 많은 사람들이 치즈를 꿈꾸던 밤

제 2 장: 미스터 무

제 3 장: 오리너구리

제 4 장: 영향력 아래에서

제 5 장: 캘리포니아 치즈 트레일을 따라서

제 6 장: 치즈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말해야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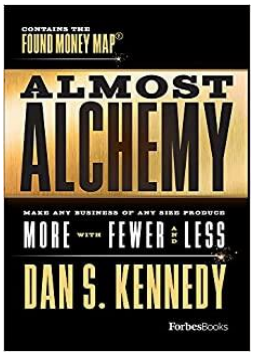
제 7 장: 페타 치즈 마차

제 8 장: 즙이 넘치는 펀하우스

(이하 생략, 총 1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조 베르코비츠 (Joe Berkowitz)는 엔터테이먼트 및 대중 문화를 주요 주제로 다루는 Fast Company의 편집자겸 전속 필자이이며 『You Blew It』의 공동 저자이다. 그는 아내와 턱시도 고양이를 기르며 브루클린에 살고 있다.



제목 : ALMOST ALCHEMY

가제 : 비즈니스 연금술사 - 비즈니스 가성비를 위한 20가지 경영 전략!

저자 : Dan Kennedy

출판사: Forbesbooks

발행일: 2019년 10월 23일

분량 : 152 페이지

장르 : 경영

***"20년 동안 댄 케네디는 내 사업의 비밀 병기였다." - 구글, 페이스북 및 기타 소셜 미디어의 온라인 마케팅 부분 권위자 크리스 카델**

*** "대부분의 산업은 아주 약한 재무 효율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해결해줄 수 있다." - 『$20-MILLION AND BROKE 』의 저자, 테드 오클리**

많은 기업가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마케팅 전문가인 저자 댄 케네디는 이 책에서 내가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는 방법을 과감히 공유한다. 이 책은 독자들이 바로 자신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고 탄탄한 내용을 가진 안내서로,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리스트를 제공한다.

저자는 원래 재무 전문가이자 광고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처음 광고, 마케팅 및 판매 전략 개발 상담을 위해 그를 찾아왔던 고객들은 그가 이 전략들을 비즈니스 재무 효율성과 더불어 생각하는 것을 두고 매우 의아하게 여겼다. 그는 광고를 비롯한 금융 공학, 재무 효율성을 따져 보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가는 과학적 프로세스라고 믿는다. 또한 가능한 최대 재무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새로운 고객 확보 및 고객 유지에 대한 투자에서 모든 경쟁 업체를 크게 능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수학적 계산과 사고 체계의 틀, 스스로 정한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존의 목표뿐만 아니라 오히려 목표치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상상하고 재창조,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20가지 입증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신화를 철저히 파괴하고 문제 발생 시 먼저 그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요즘 나오는 책들처럼 새로운 미디어나 인기 트렌드를 활용하여 마케팅의 꼼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비즈니스가 가진 무자비한 현실, '사회적 정의'와는 완전히 무관하면서 오직 가치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돈의 물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행동과 이익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또한 그는 다른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흔히 놓치고 마는 부분들에 특별히 강조한다. 그는 마케팅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에게 최대한 손실 방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직원의

실수 혹은 배달원이 중간에 물품을 빼돌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재무 관리만큼 사업체에 저렴한 비용으로 감시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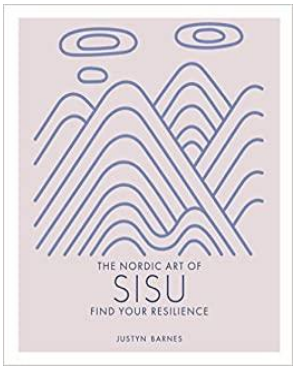
신화적인 맥락에서, 연금술은 일반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그저 평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사업을 대신 더 큰 규모의,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업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
제1장. 낭만과 존경, 돈과의 관계
제2장. 손실 방지가 곧 이익& 운영진에 맡기는 게 가장 중요
제3장. 실행 가능한 본질, 가능한 한 빨리 테스트 및 분할 테스트하기
제4장. 끊임없는 후속 마케팅
제5장. 피라미드 오르기, 사다리
제6장. 가격 해방
제7장. 장소가 가진 힘을 활용한 전략
제8장. 점수판의 유일한 점수들
(이하 생략, 총 1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댄 케네디(Dan S. Kennedy)는 수억대의 자산을 소유한 기업가이자 판매 및 광고 전략 고문으로서 수많은 대기업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왔지만, 또한 그는 비즈니스계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정육점, 빵 굽는 사람 및 촛대 제작자들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도 관심이 많다. 20 여 권의 인기 경영서를 저술했으며, 9년 동안 열린 미국 전역 세미나 투어의 인기 연설자였고 도널드 트럼프, 벤엔제리 창업자, 지그 지글러와 함께 같은 연설대에 선 바 있다.



제목 : THE NORDIC ART OF SISU

가제 : 노르웨이의 힘, '시수'

-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에서 찾는 '끈기'와 '용기'의 미학

저자 : Justyn Barnes

출판사: White Lion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1월 25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휘게', '라곰', '리케'를 잇는 북유럽 특유의 삶의 지혜와 철학 '시수'에 관한 책**

*** 최근 심리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개념**

우리는 때때로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들을 겪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혹시 내 안에 있는 인내심과 극복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핀란드 사람들이 흔히 '시수 (sisu)'라고 부르는 내면의 힘을 발휘한 것일지도 모른다. 직역하면 '끈기'이지만, 그 이상으로, 용기 있게 문제를 직면하여 건설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도전 과제로 재인식하고 끈기와 창의력을 원동력으로 삼아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시수의 사전적 의미는 수세기에 걸쳐 변화를 겪었다. 원래 시수는 핀란드어로 '내장'이나 '사물의 내부'를 나타내는 핀란드어 '시서스(sisus)'에서 파생된 말이다. 시수가 문서 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1500년대로 추정되며 이때 시수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자연스러운 경향'을 뜻하는 말이었다. 이와 관련된 단어 '시수쿤다(sisucunda)'는 18세기 핀란드어 사전에 다르면 강한 감정이 시작되는 인체의 한 장소라는 뜻이었다. 한편 최근 연구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시수는 직감보다는 사고 방식을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시수가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그것은 시수가 사람들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힘보다 더 강력한 내면의 힘, 즉 문제에 부딪혔을 때 원래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능가하여 발휘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련의 핀란드 침공 이후, 1930년에서 1940년까지 이어진 동계 전쟁은 전세계의 관심을 핀란드의 시수로 이끌었다. 당시 적군은 핀란드 군보다 적어도 3분의 1이상으로 많은 병력을 갖추고 있었고 더 강한 화력과 장비, 항공기, 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핀란드인들은 이 불리한 상황과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시수는 회복력이나 인내를 뜻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도전 과제가 해결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조차 절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심리학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기 주제인 시수는 인간의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시수의 핵심은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든, 갑작스러운 이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든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용기를 갖게 만드는 정신이다. 혹시

인생의 마라톤에서 벽에 부딪히고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시수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비록 시수는 핀란드에서 유래된 개념이지만, 저자는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그 누구든,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상관없이 역경을 극복하고 내면의 용기를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책에 수록했다. 핀란드인들의 지혜와 철학을 통해 강인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

서문
1장. 시수의 뿌리
2장. 회복력 찾기
3장. 솔루션을 찾기
4장. 함께 더 강해지기
5장. 시수 기르기

<저자 소개>

저스틴 반스(Justyn Barnes)는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및 독자들의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인『Ikigai』와 같은 안내서를 포함하여 6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제목 : AM I A FEMINIST?

가제 :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저자 : Alma Guillermoprieto

출판사: Literatura Random House

발행일: 2020년 2월

분량 : 120 페이지

장르 : 페미니즘, 에세이

*** 멕시코 출신 언론인이자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우리에게는 꽤 새로운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으로 현대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대중적이고 쉬운 접근법으로 풀어본 페미니즘에 관한 책**

*** "길예르모프리에토의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즐겁다. 그녀의 책은 겸손함, 스마트한 유머 감각, 깊은 지식으로 가득하다" - 뉴욕 타임즈**

*** "라틴아메라카의 조지 오웰"- 데이비드 레미니크**

한국에서도 일명 '페미니즘 리부트 운동'에 시동이 걸리면서 대중은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정의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알고 보면 페미니즘에도 역시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이 있다. 남미의 조지 오웰이라 불리는 유명 작가인 저자 알마 길예르모프리에토 역시 어느 날 스스로에게 자신이' 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 질문 덕분에 그녀는 일흔이 다 되어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다. 저자는 평생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기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했고 때문에 굳이 자신을 '페미니스트 작가'라고 칭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질문들이 찾아왔다. '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며면 혹시 내가 반드시 따라야 할 행동 강령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폭력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라틴 아메라카의 현실 속에서 페미니즘 투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약 40년간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온 세계적인 언론인이었고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저작들을 출판한 작가였다. 하지만 그녀는 일흔이 되어서야 많은 여성들로부터 '독단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되는 길'은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해 진심 어린 질문들을 받게 되었다. 저자는 이 질문들과 관련하여 자신의 초기 탐구 과정들을 다시 떠올렸고 새로운 남성성과 미투 운동과 같은 페미니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렸다. 페미니즘의 역사, 문화적 사실 및 개인 경험 등을 기록한 이 책을 통해 적극적인 투쟁에 아울러 이론적 투쟁 사이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보다 포용적인 페미니즘에 관한 요구와 그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라틴 아메리카 현실에 대한 깊이 있고 날카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이 대륙에서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알마 길예르모프리에토(Alma Guillermoprieto)는 Guardian, Newsweek 및 Washington Post에서 기자로 저널리스트 경력을 시작했고 1989 년 이래로 The New Yorker와 New York Review of Books에 글을 기고해왔다. 그녀의 책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었으며 사진 작가 애니 레이 보비츠와 철학자 마리아 잠브라노의 뒤를 이어 커뮤니케이션 및 인문학 부문 아스투리아스 공주 상을 수상한 세 번째 여성이기도 하다.